

들꽃편지 601

2019.5.6 입하호

<http://cyw.pe.kr> 햇볕같은이야기

욥기를 읽으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성경 욥기는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중에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쓰여졌다고도 하고,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도 하고, 다른 종교의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논쟁을 통해서 세 가지 사상적 큰 흐름을 따라갑니다. 현대 교회는 이 세 흐름 중에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 어본 설교주? 현대 교회들은 거의 세 친구의 주장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둘째로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기 위하여 징벌, 고난, 어려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유대교 경전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 강단에서도 공공연하게 설교를 하는 주제가 기도 합니다.

셋째로 욥은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강단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도대체 욥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기서는 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읽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아니라 욥을 인정하고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기 시작한 최용우 올립니다.

덜하는 것이 더하는 것

뛰어난 교사가 되고 싶거든 道에 따르는 것을 배워라.
억지로 지배하려 하지 말고
미리 예정하거나 생각하기를 그만 두어라.
배움의 장(長)이 스스로 꾸러 나갈 것이다.
그대가 구속하면 구속하는 그만큼
학생들은 덜 유순(柔順)해질 것이다.
벌을 주면 주는 만큼 더 위태롭게 될 것이며
도와주면 주는 만큼 덜 독립적인 학생으로 될 것이다.

그러기에 슬기로운 교사는 말한다.
“내가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정직하다.
내가 구속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내 기준(standards)을 뛰어 넘는다.
내가 재촉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자기네 과제(課題)를 완수한다.
내가 선(善)을 요구하지 않아서 선이 돌맹이처럼 흔해진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어디에도

홍성 5일 장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장터에 가득 가득 합니다.
여기저기 장을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도 있고,
장날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
팔죽도 사 먹고 도너스나 파배기도 사먹고
국밥도 사 먹으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곤 합니다.

장날은 그저 질서도 규칙도 없이
여기저기 빈자리에 비집고 앉아 함지박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가게가 됩니다.
5일장에는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아직도
순박한 시골 정서가 가득하고 인정이 넘쳐납니다.
올망졸망 천막을 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활기찬 모습도 있지만
삶의 고된 모습이
지친 모습이 들어옵니다.
삶의 전쟁터입니다.
장터에 팽과리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꼭 개구리 울음 소리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제산 목사
오직예수님과함께
<http://cafe.daum.net/ojesuslove>



말하는 것을 훈련하라

마음속에 있는 결심이나 소원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결심만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해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은 공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입으로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실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나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하고 소리를 내서 토박토박 말을 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분명 반응이 옵니다.

바른 소리는 사람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천천히 토박토박 정확하게 내는 소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2. 강력한 성경읽기를 훈련하라

성경을 부르짖듯이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영혼을 강건케 하고 감각을 깨우는데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어서 특히, 강력하게 부르짖듯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지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직접 우리의 몸과 영혼에 부딪쳐 영적인 움직임, 영적 작용이 일어나게 합니다.

먼저 눈에 힘을 강하게 주십시오. 눈에 힘을 주지 않으면 강력하게 소리를 내서 읽기가 힘듭니다. 온 몸을 긴장시키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배에 힘을 주고 마치 웅변을 하는 것처럼, 연극의 대사를 읊는 것처럼, 약간 과장스럽게 감정을 넣어서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성경을 강력하게 읽으면 그것은 마치 말씀의 강력한 파워로 맞은 것 같으며 심령

가운데 말씀의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감동과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어느 누구든지 언어생활이 100%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성기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평소의 언어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나 속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에도 좋지 않지만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바른 발성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입술을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고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어 있던 사람이 기도할 때 갑자기 그 입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입을 사용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보다 더 영적으로 좋지 않고 위험한 것은 진실에서 나오지 않은 이중적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어의 권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시인하고 선포해도 하나도 그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된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정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세요. 부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영혼과 일치되게 하십시오.

4. 언어로 부르짖는 것과 소리로 부르짖는 것

언어는 그 사람을 감추지만 소리는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언어는 뇌를 움직이지만 소리는 영혼을 깨우고 움직입니다.

언어는 의식의 표면에서 나오지만 소리는 그 사람의 깊은데서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강하게 부르짖듯이 말하는 기도는 발성을 강하게 하는 기도이며, 강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의미가 없는 단순한 소리를 사용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외침 같은 소리의 기도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5. 부르짖는 기도 소리의 원리

부르짖는 기도는 언어의 기도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소리, 의성어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기 보다는 그저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는 생각으로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기도’의 내용은 ‘끼리에 엘레이손’, 즉 ‘주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입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주여, 저를 붙잡히 여겨 주소서’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직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10분, 20분 반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점점 입의 발음이 묘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마치 방언을 하면서 발음이 달라지고 새로운 방언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6.부르짖는 기도의 요령

- 1.목으로 악을 쓰지 말고 배에서 소리가 나와 목을 통과하게 하라
- 2.심령으로 부르짖으라.
- 3.부르짖을 때 주위상황과 조화되게 하라
- 4.부르짖을 때 온 몸에 힘을 주라
- 5.사자처럼 부르짖으라.
- 6.다양한 소리를 사용하라
- 7.부르짖으면서 자신 속을 살피라.
- 8.파도처럼 리듬을 타라.
- 9.상상으로 부르짖으라.

7.부르짖는 기도로 나쁜 기운을 토하라

부르짖는 기도로 질병도, 불쾌한 마음도, 상처도, 고통도, 중독의 증상들도 모두 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를 부르며 나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하는 발음으로 길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계속 토해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10분 정도 부르짖으면 대체로 가슴이 후련해지며 시원해집니다. 소리를 아주 길게 끌게 되면 깊은 속에 숨겨져 있었던 상처까지 올라와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주여 ~ ~ ~ 주여 ~ ~ ~ ~’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결국 나를 비우고 우직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한 간절하고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8.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로 부르짖기

정서적으로 풍성해지고 당신의 안에 억압되어 있는 정서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높은 소리로, 강한 영력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며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싶으면 낮은 발성으로 강하게 부르짖으세요. 높은 소리는 정서를 강화시키며 낮은 부르짖음은 의지를 강건하게 합니다.

슬픔이 있을 때 높은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쏘아내시고, 마음이 지나치게 냉정해지고 굳어져 있다고 느껴지면 높은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약할 때 낮은 부르짖음으로 외쳐서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어느 정도의 높은 소리가 정서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어느 정도의 낮은 소리가 강함과 담대함을 일으키는지... 그것은 당신이 직접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9.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의 조화

기도는 조용히 묵상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큰소리로 강력하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 조용하고 깊은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지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의 사람들이고, 뜨겁고 시원하며 강렬하게 드리는 기도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다혈질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며 같이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부르짖다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다가 묵상으로 들어가고... 다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느 한쪽 방법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의 기도를 나쁘게 평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부르짖는 기도의 과정과 현상들

바다에서 석유를 캐 때 처음부터 맑은 석유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찌꺼기 같은, 아주 혼탁한 기름덩이와 지저분한 물이나 슬러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질 좋은 원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을 태울 수 있는 귀한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 당신 안에서 처음에는 별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는 정화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날마다 정화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찌꺼기들은 날마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11. 무리하게 부르짖으면 탈진이 온다.

기도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파도치듯이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해서는 영혼이 깨어나고 활동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파도가 밀려갔다 밀려오고 달이 차고 기울고 다시 차듯이 부르짖는 기도는 리듬을 타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토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충전기도와 함께 드리지 않으면 탈진이 되어 약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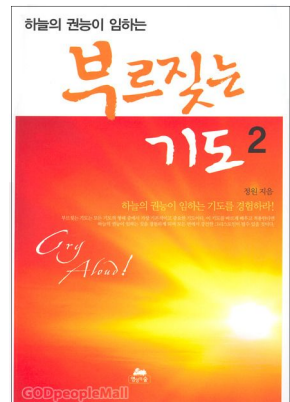
12. 부르짖음으로 충전하기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입으로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소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기분으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의식에 따라 소리를 통해서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도 들여 마시는 호흡과 내보내는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며 우리에게 필요한 기운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혼탁해진 기운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리도 내보내는 소리가 있고 끌어당기는 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글은 책을 구입하여 읽으세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 2
정원 지음 / 영성의숲
493쪽 14,000원



내 머리 위에서

설 명절을 처가에서 보냈습니다.
새벽에 배가 짜르르 아파
더듬더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졸면서 일을 보고 앉아 있으니
짜아.... 내 머리 위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 앉아 있는
내 궁텅이 밑으로 7층이 있고
내 머리 위로도 몇 층이 더 있습니다.
우~ 내 머리 위에 몇 명이나 똥을 누고 있으며
와~ 내 엉덩이 아래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참으로 위아래도 없는 세상. ©최용우

Re.

이신자 /하하하.....

박은영 /으하하하하~~ 올 아버지 늘 말씀하시던 것 생각납니다.

똥은 먼저 나온기 놀리지만, 사람은 먼저 나온기 안 놀린다이.

하긴 요샌 죄다 수세식이라 먼저 나온거고 나중 나온거고 놀릴 틈도 없

이 물에 풀어지든지 꺾어 지더라도요잉 *ㅡ,* 으웨엑.

김소영 /사실 이글 보면서 꼭 답글 쓰고 싶었는데 요

그중에 오줌 싸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신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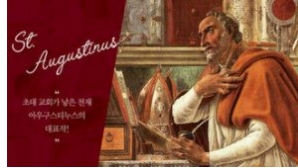
박은영 /으헤헤헤헤헹 우스버서 글이 안 써진다 아이고 허ㅣ이고야

으헤헤 변비 걸린 사람은 출혈도 흘리는데요? 으음 넘 심했나?

변비녀 /어헉!!!!!!!!!! 누가 내 말했지?????

최강욱 /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똥을 누게 하는 거 넘오나 감사해요!

시대의 재앙과 하나님의 섭리



35.사악한 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교회의 아들들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 우리는 반대자들을 대할 때, 이 반대자들 중에 미래의 동료가 될 사람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맞설 때 그들의 적대감을 잘 인내해야 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 가운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몇몇은 영원한 본향까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6.반대자들에게 주는 대답

만약 그들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려 들지 않고, 건전한 가르침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맡겨서, 그 믿음과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치유하기에 은혜를 받는다면, 이런 상세한 변명도 필요 없을 것이다.

37.제1권 요약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로마의 재난을 우리 종교 탓으로 돌리는 자들에게, 희생제가 금지되기 이전에도 겪었던 수많은 재난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제2권 그릇된 도덕을 낳은 다신숭배

38.제2권 예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이유로 경건치 않으며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도 미치게 되는가? 그리고 적들이 가한 곤경이 어떤 이유로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한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당하는 재앙 뿐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선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나 악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인해 항상 고민스러워 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답변을 주기 위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

햇볕같은 이야기



1. 네 가지 훈련

어떤 분이 떠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자기를 따라오면서 아양을 떨기에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려면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 떠돌아다녀서 꼬질꼬질해진 몸으로 집 안에서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프더라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 훈련은 ‘육체의 악’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육체의 악이란 ‘행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의 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성적 욕망을 채우려 이놈저년을 꼬시고 다니는 짓), 남색(동성애), 도적, 탐람(탐욕스런 욕심), 술 취함, 후욕(판단하고 정죄하는 짓), 토색(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는 짓)등을 버려야 합니다.(고전6:9-10)

육체의 악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노회장 총회장이 되어도 육체의 악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빨리 버리면 훈련 기간이 짧아지지만,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평생 첫 번째 훈련도 통과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첫 번째 훈련도 통과

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육체의 악’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도와 주십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육체의 악’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6329)

2. 육신의 악을 버리는 훈련

기독교인이 되면 무조건 ‘육체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몸에 묻은 오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악’을 처리하지 못한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미숙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육신의 악’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육체의 악이 눈에 보이는 죄라면 ‘육신의 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육체의 악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눈이 무서워서라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악’은 마음 속으로 짓는 죄라서 겉으로 안 보이도록 철저하게 위장할 수 있고 평소에는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면 슬슬 기어 나옵니다.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것이 감정과 혈기가 ‘버럭’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버럭’이 쉽게 나옵니다. 또한 ‘음란’이 숨어 있다가 조건이 맞는 순간 튀어 나옵니다. 안타깝게 많은 목회자들이 음란죄에 걸려서 실족하는 것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두 번째 훈련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존심이 건드릴지면 험크처럼 폭발하지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모양을 드러내어 처리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훈련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문득문득 이런 죄들이 튀어나와 버리면 정말 허무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악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6330)

3. 양심의 악을 버리는 훈련

세 번째 훈련은 ‘양심의 악’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을 한 10여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단계에까지 이르는 못했습니다.

혈기 왕성한 40대는 거의 없고 육체에 힘이 빠지는 50대 이후에 가끔,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거나 커다란 핸디캡이 있는 분들 가운데 ‘양심의 악’을 버리는 훈련 단계인 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단계의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이 양심은 말쑥에 비추어 보면 딱히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육체의 죄를 처리하는 첫 번째 훈련과, 육신의 죄를 처리하는 두 번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드러내놓고 누구와 다투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나의 양심에 비추어 옳은 일이기도 하고 옳지 않은 일이기도 하여 마음속에서 두 마음(양심)이 갈등을 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이 마음조차도 내려 놓는(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마저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세 번째 훈련입니다.

흔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 주여, 저도 어서 빨리 세 번째 훈련을 받고 싶나이다. (6331)

4. 본성의 악을 버리는 훈련

네 번째 훈련은 ‘본성의 악’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내려 받은 육에 속한 체질과 영에 속한 기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질머리’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을 풀어서 DNA를 바꿔주셔야 가능한 훈련입니다.

못 고쳐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성질머리는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오래 사신 노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젊었을 때의 배우자의 그 성질머리가 바뀌었는지 물어 보세요. 늙어서 힘이 빠진 것이지 바뀐 게 아닙니다. 그 더러운 성질머리... 젊어서 일을 많이 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늙어서 이상하게(?) 변하여 평생 이룬 공덕을 다 까먹고 손가락질 당하며 퇴장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다 안 바뀐 성질머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본성을 바꾸어 그 사람을 신령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저는 제 평생에 그런 신령한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과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 총장이 ‘탐욕’에 가득차서 학교를 사유화 하려다가 감옥에 앉자 계시고, 교단 총회장 격인 어떤 감독이 성 추행으로 쫓겨나고, 지

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세상 권세만 탐했지 하나님의 훈련은 1, 2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독교의 깊이는 세상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납니다.

세상 똥 같은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네 가지 훈련을 성실하게 잘 받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6332)

네 믿음

어떤 한 여자가 다낭성난소증후군(혈루증)으로 하혈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한달 내내 생리통으로 배를 움켜쥐고서 아무 일도 못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실 거라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만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떤지 자기의 고통스런 병이 썩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어찌어찌하여 손을 쪽 뻗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뭐든 다 아셔버리는(?)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도 그녀를 돌아보시며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마9:22) 누가 병을 고쳤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옷입니까? 본인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맘씨 좋은 너털웃음으로 음허허허허허... 그렇게 웃고만 계실 뿐입니다. 자꾸 밖에서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이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밖에서 찾아봐야 피곤하기만 할 뿐 못 찾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나이다.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주님 만나면 다 보일 것 같나이다. (6333)

자기 믿음

어떤 한 남자가 양안실명전맹(시각장이인)으로 가족들이 있음에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거지로 살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머리가 푹푹하여 ‘반향정위’를 배웠습니다. 반향정위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자율주행 자동

차처럼 소리의 파동으로 거리와 간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하여 여러 가지 소리만 듣고도 거리를 판단하고 그냥 길거리를 자유롭게 자율주행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예민한 청각에 사람들의 수근대는 소리가 마치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감지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손을 대기만 해도 무슨 병이든 다 낫는디야 글썄..” “그으래? 참 신기한 일이군. 저 소경도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뜰 텐데... 그치? 오 온다..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눈을 뜬다는 말에 그는 귀가 번쩍 하여 앞뒤 생각할 것 없이 소리부터 쫓습니다. “예수여! 여기 좀 보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를 밀렸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걸치고 있던 옷도 내버리고 뿔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막10:52)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볼 것이라는 ‘자기 믿음’으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 실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미 믿음은 내 안에 잔뜩 있습니다. (6334)

나를 구원하는 믿음

어떤 남자가 미코박테리아나중균(한센병)에 감염되어 사마리아 한적한 곳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디쯤에 같은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난 길로 뺑 돌아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한센병 마을이 있다며 말렸지만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환자들은 마을 앞에 나와 있다가 멀리 예수님의 일행이 보이자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폐창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마리아에서 온 남자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함께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음을 증명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느새 자신들의 몸이 다 나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남자는 돌이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그의 발 아래

앞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만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눅17:19)

아홉명의 환자들은 단순히 몸만 치료받았지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그는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335)

육체와 영혼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고향 선산에 묻히는 것이라 시신이 5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장례버스 맨 아래 관을 넣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시신은 그곳에 넣고 버스 안에는 영정을 모시고 들어가 영정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짐칸에 있는데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마치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시신을 담은 관은 어딘가 냉동 창고에 있고 조문객은 그 영혼이 영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영정에 대고 조문을 합니다.

이로 보건데 분명히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확실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인간은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으로 이중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혼의 생명’은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어떤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즉시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저는 모르죠. 안 죽어봤으니.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나 위경에는 천국으로 갈 영혼은 잠시 낙원으로 가 있고, 지옥으로 갈 영혼은 잠시 연옥으로 가 있다고 합니다. 외경이나 위경을 인정하는 카톨릭은 대놓고 그렇게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러올리신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저는 모르죠. 저는 기독교인이라 ‘모른다’는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을 하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최용우 (6336)



하트 (사진:최용우)

이쁜 궁둥이

세종호수공원 언덕에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하트 부조 작품이 하나 있다. 조명장치가 되어 있어서 밤에는 하트에 불빛이 반짝 반짝 들어온다. 남녀 커플들이 하트 양쪽 엉덩이를 하나씩 붙잡고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니 하트 모양이 ‘이쁜 궁둥이’를 닮았다. 와우 진짜 만져보고 싶은 궁둥이인데... 만졌다가는 뽀빠대기 맞겠죠? 하트는 ‘심장’을 본떠 만든 모양인데 음... 저렇게 이쁜 모양의 심장이 어디 있어. 저건 분명히 궁둥이를 보고 만든거야...

엉덩이는 배꼽 조금 아래에서 무릎 조금 위까지 전체 모양을 가리키고, 궁둥이는 뒷부분에 볼록 나온 볼륨, 너무 크면 궁둥이, 너무 작으면 궁둥이, 납작하면 엉덩이...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아이구, 이런 음란마귀...

그림자가 없다면

인숙 “그림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함께 걷던 아내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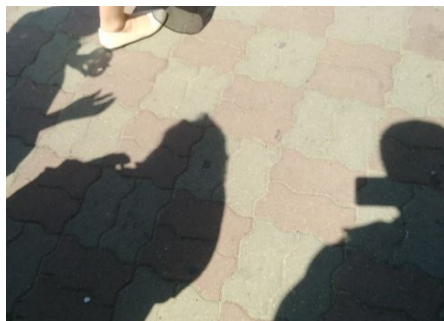
용우 “웬? 혹시 봤어?”

인숙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용우 “난 또 깜짝 놀랐네. 그림자가 없으면 귀... 귀신이지.”

그림자는 빛이 어떤 물체를 통과하지 못할 때 그 뒤편에 생기는 어두움이다. 고로 물체가 아닌 허깨비는 빛이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을 잘 보면 그림자가 없다. 그것은 조명팀이 얼굴 어둡게 나오지 말라고 뒤편에서 반사판을 들고 그림자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 예쁘다고 아무리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내 뒤에서 누군가 반사판을 들어주기 전에는 말이다.



흠뻑나물

흠뻑나물이며 두릅이며 쑥 같은 것들을 따 와서 길가에서 파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지나가던 할머니가 흠뻑 한덩이를 들고 얼마냐고 묻는다.

“한 덩이에 3천원이여. 남자 넷이서 하루 종일 판겨. 그렇게 따도 그거 한 덩이밖에 안나 와 그제.”

사는 할머니는 비싸다고 하고 파는 할머니는 싸다고 한다. 아내와 나는 흠뻑을 따 본적이 있어서 “와 - 3천원이면 거저 주는 거지. 저게 아무리 따도 삶으면 한 덩이 밖에 안돼. 한 바구니가 한 덩이야.” 라고 했다.

사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두개 줘봐” 하고 두 덩이 샀다. 파는 할머니는 두 덩이를 담고 옆에 있던 반 덩이를 덤으로 더 담아준다. 사는 할머니나 파는 할머니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참 다행이다. 우리는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왔다.



노틀담의 꼽추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을 때 프랑스 노틀담성당 프롤로 대주교는 과지모토 라는 꼽추인 고아를 주위다 성당 안에서 키워 심복으로 삼았다.

그런데 대주교가 에스메랄다 라는 여인에게 훌쩍 반해 심복인 과지모토를 시켜 유부녀인 그녀를 납치해 오라고 명령을 내린다. 심성이 착한 과지모토는 납치극에 실패하여 모든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는데, 에스메랄다는 과지모토가 자기를 위해 일부러 납치극에 실패한 것을 알게 되고 과지모토에게 사랑을 느낀다... 어찌고 저찌고 스토리가 그렇게 흐르고 흘러...

에스메랄다는 마녀로 몰려 화형 당하고 과지모토는 대주교에 의해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오랜 세월이 흘러 처형당한 사람들의 뼈를 보관하는 납골당에 등이 굽은 뼈가 다른 뼈를 안고 있었다는... <노틀담의 꼽추> 그 880년 된 노틀담 성당에 불이 났다.



책표지 만들기

알라딘 헌책방 은행동지점에 갔을 때 입구에 책표지를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벽이 있었다. 나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책 표지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 보았다. 매장 안에 들어가 책을 찾아 사 가지고 나오는 시간 보다 책표지 들여다 보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알라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고르고 고른 책표지라는 설명이 있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책표지는 어떤 것인지 눈을 송아지 눈처럼 크게 뜨고 열심히 살펴보았다.

책표지를 만드는 일은 이게 정말 책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 책표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전문서적도 몇권 사서 읽었는데, 표지를 만드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냥 잘 만들었다는 표지를 많이 보고 뭘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보다.



5.18과 세월호

세종도서관 책 반납하러 갔다가 세종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하는데 야외광장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제가 한창이다. 어떤 전문가는 전국에 생중계된 세월호 사건의 충격은 학생들에게 6.25전쟁 때 겪었던 충격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충격이었다고 했다.

6.25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평생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당시에 학생이었던 세대는 평생 세월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거라 했다. 나에게도 5.18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때 나는 중3이었다. 동네 앞으로 공수부대 트럭이 지나가던 모습, 떠돌던 유언비어, 학생들이 도로 양쪽 풀밭을 뒤져 총을 찾던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조선대 다니던 동네 형이 광주에서 빠져나와 들려주는 얘기는 언론과 전혀 달랐다. 그때 나는 국가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잘먹고 잘살아유

밥은이가 가끔 카톡에 오늘 뭘 해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올린다. 오늘은 아주 한 상 만들어서 학교에 싸 가지고 가 동기들 이랑 나누어 먹었는데 아주 명절 분위기였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우리 집 밥상보라도 퀄리티가 훨씬 더 높다. 음...

자식이 집을 떠나 살면 부모의 관심은 온통 자식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에

있다. 아주 인사가 “밥은 먹었냐?” 이다. 아마도 부모 세대는 젊었을 때 배고픈 세월을 많이 보내서 자식들도 그러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일 것이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건빵 한 봉지로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눈물의 빵’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 오히려 형그리 정신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무조건 자식들은 밥은 먹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엄마도 그랬을까?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407회 비학산 일출봉192 2019.4.3

▲제408회 비학산 일출봉193 2019.4.12.

▲제409회 **갑하산**-신선봉-우산봉-세미래공원 2019.4.20

문득 어디든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대충 가방 매고 집을 나섰다. “어디 가게 유?” 나는 나도 모르게 “갑하산 한번 뺑 돌고 올게유.” 그래서 얼떨결에 갑동-갑하산-신선봉-우산봉-세미래공원-반석역까지 10km를 4시간 동안 걸었다. 버스-전철-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만에 갑동 정류장에 내리니 배가 고팠다.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젊은 유럽인들이 요리를 만들고 서빙을 한다. 딱 봐도 몰... 뭐시기 들이다. 유럽인들이 선교한다며 일본(나가사키)간판 달고 중국(짬뽕)음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모습이 웃겼다. 우산봉 능선은 진달래꽃이 환상적으로 만개해 있었다.



▲제410회 오봉산 2019.4.27

아내와 함께 오봉산 올랐다. 가면서 오봉산 입구 보리밥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다.

〈부부가 함께 산에 가면 좋은 점〉

1. 딱히 돈이 안 든다. 2. 산에 있는 동안 만큼은 싸울 일이 없다. 숨차고 힘들어서 못해. 3. 산에 갔다 오면 마누라가 아침까지 쭈욱 아주 잘 잔다.^^ 한 20년 살다보면 밤에 마누라가 깨어 있으면 무섭다. 그 이유는 19금이라 말 못해.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모 공장에서 모판을 기르는 모습 (사진:나주신문)

①입하(立夏)여름이 시작되었음

흐드러지던 봄꽃들은 지고 산과 들에는 초록빛이 짙어지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하며, 모판에는 벼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의 보리이삭들이 패기 시작합니다. 저는 산책 중에 영대리 고개 넘어 저수지 아래 논에서 비닐로 씌운 모판을 보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모도 공장에서 나오니 모판 보기가 쉽지 않군요. 기계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모도 규격에 맞추어 길러 냅니다. 그래서 논 한 마지기(200평)당 모판 24장(장당 3천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0kg의 벼를 생산해 냅니다.

날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요. 저도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쌀이 모자라던 시절에는 논에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해 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쌀이 남아돌아가는 지금은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쨌든 점점 밥맛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②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은행에 갔는데 입구에서 아가씨가 웃으면서 배꼽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몸은 하루 종일 쌓인 힘들이가 그대로 느껴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웃으면서 좋은 기운으로 만나야 합니다. 거지가 와도 웃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얼굴을 찡그리면 몸의 기운이 어둡게 변해서 어두운 기운이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웃기만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억지로 웃는 겉웃음은 몸에 기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웃음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웃으며 따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정신병원에 그렇게 웃는 사람 많죠. 그렇게 억지로 웃으면 턱살이 쳐져서 나중에 얼굴이 마귀같이 됩니다.

좋은 웃음은 내면에서 우리나라오는 기쁨이 은은하게 저절로 표출됩니다. 그 마음의 행복함이 얼굴로 올라와 꽃처럼 피어나는 미소가 좋은 웃음입니다.

옛날 읽은 동화 중에 신선들은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웃는 연습을 한다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③신문 보며 기도하기

1. 퀴어문화축제 반대 - 퀴어(Queer)는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현재는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적으로 보통사람들과 다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될 공중도덕이 있는데, 백주 대낮에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나 성기 모양의 비누나 음란물을 판매하고, 음란한 공연 행위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청 앞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외설이며 변태이며 성범죄행위입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시청 앞에서 진행한다면 당장에 풍기문란으로 구속될 것입니다.

“주님! 외설과 변태적인 것을 뵈히 알면서도 문화라며 죄를 옳다할 뿐 아니라 도덕적 양심도 무시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된 저 영혼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한국 공기 질 최악 5개국에 포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에서 인도(90.2)와 중국(53.5), 베트남(30.3), 한국(25.1), 남아프리카 공화국(25.0)등이 ‘최악의 5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7.4와 11.9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비중이 가장 높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자동차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기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주님! 질 좋은 공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알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④김광현 목사님 오심

들꽃편지 창간호(1990년)부터 구독해온 독자이며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낸 변함없는 오랜 벗인 김광현 목사님이 인사차 다녀가셨습니다.

김광현 목사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터기’라는 월간지를 편집한 경력이 있으며, 대안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금은 안동에서 사과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큰딸 김한빛이도 함께 왔는데, 특히 한빛이는 아빠와 함께 사과농사를 짓는 처녀농군입니다. 한참 흥대거리에서 젊음을 발산할 나이인데 날마다 사과 꽃 따느라 청춘이 꼬부라졌다고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씩씩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귀한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으쌰~!

③도서출판 소식

2019.1.22.<풍경일기> 400쪽 14300원 나왔습니다.

2019.3.18.<예수 나의 형통>330쪽 12300원 나왔습니다.

2019.5.월중<천변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이 나올 계획입니다.

책을 구입해 주심으로 햇별같은이야기 사역을 거들어 주십시오.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27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19.1월 재정결산

2019년 1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박영우 박종환 양희창 예사전 오창근 옥치오
유종민 이진우 이한규 임주영 정호숙 지경희 구글 다대샘물교회 들꽃섬터교회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주님의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4분이 1,307,98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 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인터넷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19.5.6일 현재 6359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43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2019년에는 2곳을 후원합니다.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시리즈

	쪽	가격
1.가슴을 짝 펴라	308	11,600
2.다시 별떡 일어나라	336	12,400
3.정정당당 잘 살자	336	12,400
4.예수 잘 믿는 비결	326	12,100
5.가장 큰 선물	326	12,100
6.인생 최대의 행복	316	11,800
7.나도 할말있다 나옹	318	11,900
8.하나님의 얼굴	325	12,100
9.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	12,200
10.예수 나의 형통	330	12,300

○일기 시리즈

11.감사일기	392	14,100
12.햇빛일기	396	14,100
13.행복일기	396	14,200
14.풍경일기	400	14,300

○시집 시리즈

15.숲속의 아침	138	7,200
16.설레임	146	6,700
17.어부동의 아침	150	7,600
18.내영혼이 주를 찬양	398	16,300
19.찬양하라 내 영혼아	398	14,300
20.천변을부른주님내입에는찬양만	1000	35,600

○말씀기도 시리즈

21.따뜻한 밥상-아침1구역	400	14,300
22.따뜻한 밥상-점심1시편	402	14,400
23.따뜻한 밥상-점심2점.전	398	14,300
24.따뜻한 밥상-저녁1신약	400	14,300

○경건묵상 시리즈

25.세상에서가장 좋은이야기	722	24,300
26.세상에서가장 밝은이야기	720	23,900
27.새벽우물(3판)	878	28,700
28.플러스 예화(2판)	490	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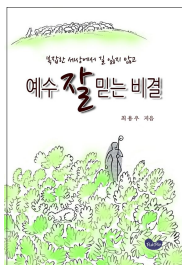
○주보자료 시리즈(10권)

①맛있는 주보CD	30,000
②멋있는 주보CD	30,000
③폼나는 주보CD	30,000
④탐나는 주보CD	30,000
⑤양육 주보CD	30,000
⑥전도 주보CD	30,000
⑦명품 주보CD	30,000
⑧좋은 주보CD	30,000
⑨감사 주보CD	30,000
⑩기도 주보CD	30,000

○기타 시리즈

①월간 들꽃편지 합본

그동안 쓴 약 70여권의 책 원고를
순서대로 한 달에 한두권씩 교보문고
를 통해 계속 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27권을 펴내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 이름'이나 '최용우'로 검색하세요.
네이버(NAVER)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

복잡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온갖 가짜들이 미혹하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288편의 순수복음 글 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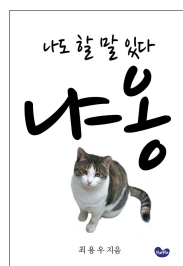
가장 큰 선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행동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행통 글
12,100원 32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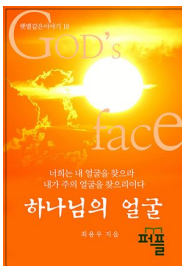
인생 최대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참된 신앙생활 비법 전수.
280편의 신앙생활 글 모음
11,800원 31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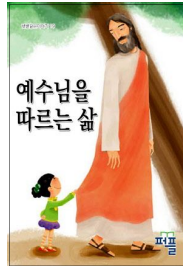
나도 할 말 있다 나옹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11,900원 318쪽 펴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288편의 깊은영성 글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동행글 모음
12,200원 328쪽 펴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개인문서선교지입니다.

*홈페이지 <http://cyw.pe.kr> cyw.kr cyw.co.kr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최용우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티2길 5-7번지 (용포리 53-3)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01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